

2020년 2월 6일 점검 종료 시(16시 30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(044-201-2151), 사무관 류성훈(2157) / 제공일: 2월 6일(총 2매)
수출진흥과장 과 장 김상진(044-201-2151), 사무관 정수연(2157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김현수 장관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 및 수출 현장 긴급 점검

- 외식업소와 對중국 농식품 수출기업 방문,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(2.6) -

-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.6(목)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외식업소(갈비 음식점)를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위생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 피해 상황과 외식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.
- 김현수 장관은 “정부는 신종 CV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식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피해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,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”임을 설명하였으며,
- “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외식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매장 및 조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다음 일정으로 중국 수출 대표 기업인 ‘연세유업’*(충남 아산시)’을 방문해, 수출 우유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와 건의를 청취하였다.

* '19년 신선우유 중국 실적(18.3백만불)의 75% 점유

- 김현수 장관은 “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우리 경제, 특히 수출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”고 밝히고,
- “이번 사태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,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.